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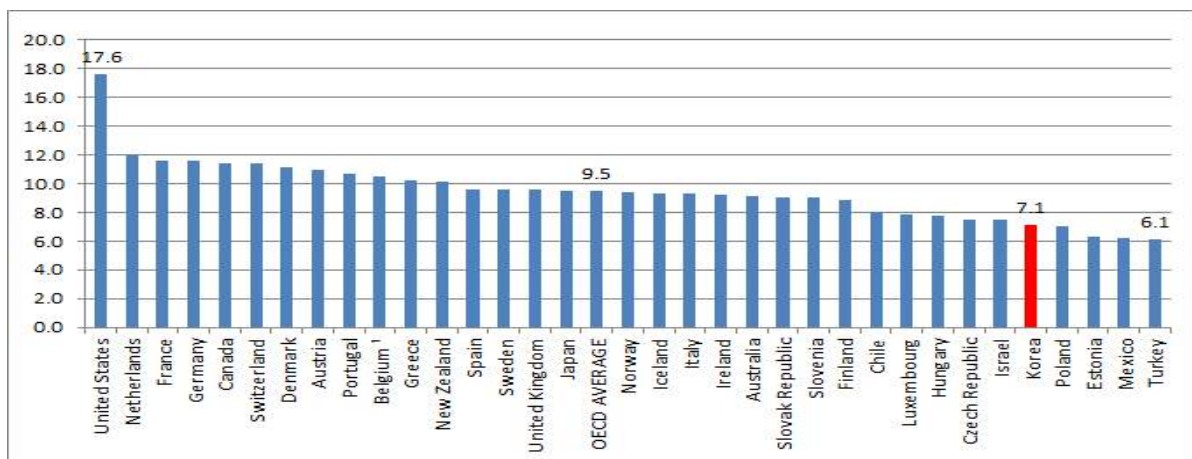
우리나라 보건의료지출의 허와 실: OECD 국가와 비교

최근 언론에서는 무상의료 또는 저부담 의료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공공의료지출이 낮은 편에 속해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수준은 결코 OECD 국가들보다 낮지 않으며, 공공의료지출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름.
 - 201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약 7.1%로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낮고, OECD 국가 평균 9.5%에 비해 2.4% 포인트 낮음(그림 1 참고).
 -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약 17.6%를 차지하고,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6.1%를 기록함.

<그림 1> OECD 국가의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2010년 기준)

(단위: %)



자료: OECD Health Data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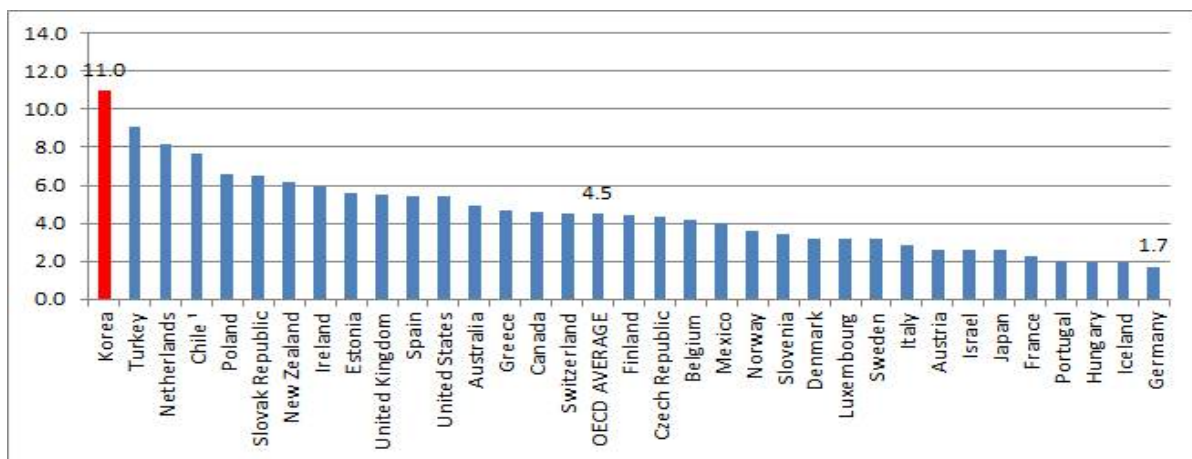
- 2010년 OECD 국가 평균 일인당 보건의료 지출은 약 3,265 달러인데, 한국은 약 2,035 달러로 28번째를 기록함.¹⁾

1) 미국 달러 PPP 기준임(OECD Health Data 2012).

- 일인당 보건의료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약 8,233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하위인 터키는 약 913달러를 지출했음.
- 공공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름(그림 2 참고).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OECD 국가의 연평균 공공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약 4.5%인데, 우리나라는 11%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그림 2> OECD 국가의 연평균 공공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 (2000-2009)

(단위: %)



자료: OECD Health Data 2012

-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지출 구성 중 공공부문의 지출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은 2006년 55.3%에서 2010년 58.2%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민간부문의 비중은 44.7%에서 41.8%로 감소하였음.²⁾
-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적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첨단의료장비 이용가능성은 높은 편임.
 -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으로 OECD 국가 중 터키(1.7)와 칠레(1.4)를 제외한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진료 및 상담건수는 12.9로 일본(13.1)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음.
 -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약 4.6인데, OECD 국가 평균은 8.6임.
 -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약 3.1이고, 진료 및 상담건수는 6.4임.

2) 보건산업통계, 「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12

- 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수는 우리나라가 8.8로 OECD 국가 중 일본 13.6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 인구 백만 명당 CT와 MRI 장비 수는 각각 35.3과 19.9로 OECD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임.
- o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수는 4.9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고, 인구 백만 명당 CT와 MRI 장비 수는 각각 22.6, 12.5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임.